

금융자산수준별 가계부채 분석

An Analysis of Household Debt by Financial Wealth Levels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부 교수 정 순 희*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Joung, Soon H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household debt characteristics by wealth levels. The dataset used was the 2000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bout 49% of sample owned some amounts of debt. Household in high wealth levels had lowest debt burden while households in low wealth level had highest debt burden. Second, the amounts of debt owed to financial agents were highest regardless of wealth levels. Third, all groups borrowed mone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real estate.

Key Words : 금융자산수준, 부채비율, 차입방법, 부채용도

* 연락처: 정순희 (jsh@ewha.ac.kr)

I. 서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4백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 가구가 진 부채는 평균 2,820만원으로 세금 등을 뺀 가구당 연간소득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미, 2002).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잔액도 2002년 75%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 부채규모와 연체율의 증가는 제 2의 금융위기를 몰고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중앙일보 2002년 9월 26일자).

최근 몇 년 동안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주로 과잉유동성과 저금리, 자금의 은행집중, 기업의 자금수요 둔화 등 공급측면에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내수중심의 경기회복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가계부문의 자금 수요증대가 맞물리면서 수요와 공급 요인이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저금리는 직접적으로 가계 이자부담을 완화시켜 가계대출수요를 확대 유발시킨다. 이러한 저금리로 인해 이자소득이 감소돼 저축의지가 약화되고 이는 소비촉진을 유발시켜 결국엔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

급속한 가계신용의 증가에 따르는 위험은 주로 가계부실의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기능의 불안정화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의 상대적 규모는 이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선진국보다 금융의 발전단계가 낮기 때문에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당연히 증가된 상태로 추정된다. 더욱이 부채증가가 단기간 내에 과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부채는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일정 기간 타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가계 경제의 상태이다(채은석·성영애, 2000). 한 가계의 소득과 소비욕구

는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계는 전생애에 걸쳐 들어올 소득과 충족시켜야 할 소비수준의 흐름을 인식하여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행해 가는데 이 때 부채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즉 소비자효용의 극대화 관점에서, 또는 현재 선호적 관점에서 초과지출이나 부채보유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가계의 초과지출과 부채보유 실태 속에는 지불능력의 한도를 넘어가는 극박한 상황의 채무가가 있기도 하고,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근로소득 이외의 자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부채를 보유하는 투자성 부채 보유자도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가계가 경험하고 있는 초과지출이나 부채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채를 보유하는 것이 소비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큼의 안정감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이것은 신용카드의 편리성이 증가하고 소비자용자의 평균 만기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신용을 사용하는 젊은 연령층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부채부담확대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Pearce, 1985).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채사용의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가구가 젊은 가계일수록 소비를 위한 부채요구가 크고, 생활주기가 진전될수록 투자를 위한 부채요구가 커지게 되어, 결국 가계의 부채요구는 생활주기가 진전될수록 월부채상환액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주인숙, 1996). 부채사용으로 인하여 가계는 현재의 소득을 초과하여 소비하게 되고 미래소득을 앞당겨 쓰게 된다. 결국 부채의 부담은 원금, 이자의 상환과 함께 가계 가용자금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가계의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가계저축에도 제약을 주게 되고, 지나친 부채 부담은 개인 및 가계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게 된

다. 따라서 가계의 초과지출이나 부채보유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언제나 존재한다(문숙재·김순미·양정선, 1996; 채은석·성영애, 2000).

가계부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부채액, 부채보유 등의 관련요인만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고 보다 세부적으로 자산수준에 따른 부채부담의 변화 및 그 구조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가계의 자산수준은 소비자의 투자위험 감수정도에 영향을 주고, 투자자금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Cohen, 1975; Weagley & Gannon, 1991). 자산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투자행동양상은 달라진다. 따라서 자산수준에 따른 부채행동에서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수준에 따른 부채특성과 부채로 인한 가계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진하여, 각 자산수준에 속해있는 소비자자 자신의 재정설계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의 부채관리에 관심이 있는 재무교육전문가를 위한 자료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자산수준 관련 재정행동

Weagley & Gannon(1991)은 미국 미조리 지역의 가계를 대상으로 자산수준에 따른 위험자산 보유비중을 연구한 결과, 자산수준이 증가할수록 위험자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위험피라미드모델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Cohen(1975)은 개인 포트폴리오(보통주, 수익증권, 정부채권, 회사채,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주거용 주택, 부동산 등)의 소득수준, 가

구주 연령, 결혼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산수준 효과를 규명하였다. 위험자산 보유율에 따라 집단을 넷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그룹별 총 자산액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의 자산수준을 투자위험감수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Ramaswami, Srivastava, & McInosh(1992)는 가계포트폴리오와 재무목표, 투자자의 특성간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가계포트폴리오 보유여부-요구불 예금 및 저축성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및 단기 시장금리부 예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생명보험, 주택, 연금, 절세 금융상품-에 대해 자산이 직접적이고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 소비자 투자행동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저축보다는 투자중심의 적극적 자산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강혜경, 1990). 대우의 ‘한국가구패널조사’ 4차 자료를 이용한 이은실·최현자(1998)은 가계포트폴리오의 자산구성에 따라 유동성 중심 가계포트폴리오, 자산중심 중심 가계포트폴리오, 위험대비 중심 가계포트폴리오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자산수준이 높은 가계일수록 자산중심 중심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박주영·최현자(1999)는 1997년 대우의 ‘한국가구패널조사’ 5차 자료를 분석한 자산계층에 따른 가계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구에서, 고자산계층과 중간계층이 비교적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저자산계층은 타 자산계층과 가계 특성이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자산계층에 따라 사금융 부채 비중, 신용구매부채 비중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부채 포트폴리오의 경우 중간자산계층과 고자산계층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저자산계층에 비해 이 두 집단은 금융기관부채의

비중이 높고 사금융부채의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신용구매부채의 비중은 전 자산계층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포트폴리오의 금융기관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신용구매부채 비중, 사금융부채 비중 순으로 나타났다. 저자산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금융기관부채의 비중이 낮으며 이에 반해 사금융부채의 비중은 높은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부채 수요가 가계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할지라도 부채포트폴리오의 수요자보다는 가계의 외부요인 즉 공급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2. 부채관련 재점연구

가계의 부채상환 실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1982년에서 1992년까지 전도시 가계는 월평균 가계소득의 10-13% 내외를 부채상환에 쓰고 있으며 부채보유가계만을 보았을 경우 25-39%를 부채상환에 지출하고 있었다(성영애, 1996). 성영애·양세정(1995)은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44.5%가 소득의 20% 이상을 부채상환을 위해 사용하며 특히 부채보유 가구 중 17.7%는 소득의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비롯하여 부채에 관한 국내연구의 대부분이 부채부담, 부채보유여부와 부채총액의 관련요인에 관한 것으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최현자(1996)는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가계소득, 부채부담,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자가보유율이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성영애·양세정(1995)의 가계의 부채부담에 대한 관련요인을 살펴 본 연구는 부채부담이 부채원수, 가구주 직업, 거주지역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직업이 봉급생활자인 경우에 비해 일용근로자 등 기타직업가구주 가

계의 부채부담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거주 가계보다 서울시거주가계의 부채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부채관련 연구를 보면, 성영애(2000)는 가구주 직업에 따른 가계자원특성과 부채구조를 살펴본 결과 봉급생활자 가계는 평균 52.2%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이 보유한 부채의 규모는 자영업자나 농림수산업자 가계의 부채보유액보다는 작은 편이었다고 밝혔다. 봉급생활자 가계는 은행부채보유율이나 은행부채비중을 보았을 때 다른 부채유형보다 은행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큰 집단이었다. 또한 다양한 부채유형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다른 가계와는 달리 8.8%의 봉급생활자 가계가 직장대출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자영업자 가계는 부채보유율은 평균 54.4%이나 부채보유규모는 가장 컸다. 자영업자 가계가 가장 의존하는 대출원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의존도도 높은 편이며 사채의존도는 다른 가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 자영업자의 경우 계를 활용하는 비중도 다른 가계에 비해 높았다. 농림수산업자 가계는 부채보유비율이 69%로 가장 높았고 부채규모도 크다. 이들은 기타금융기관에서 총부채액의 66.2%를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채를 공공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의 부채보유비율은 다른 가계들에 비해 낮은 편이고 평균부채보유액도 작은 편이나 공공금융기관부채를 보유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고 다른 가계들보다 사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성영애·최현자(2000)는 가구주 직업은 다른 변수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자영업자의 경우 봉급생활자와 비교하여 기타금융기관부채, 사채 쓴 돈을 보유할 가능성이 더 큰 편이나 직장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은 더 적다. 농림

수산업자의 경우 봉급생활자와 비교하여 볼 때, 기타금융기관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더 높았다. 주부, 학생, 퇴직자, 실업자 등을 포함하는 미취업자의 경우는 봉급생활자에 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다. 가계 내에 소득자 수가 많을수록 은행 부채 및 기타 금융기관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부채와 관련된 요인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영애(1996)는 도시근로자가계의 부채부담추이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교 졸업자 가계, 봉급자 가계의 부채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부담이 높았고 단순노무자가계에 비해 전문기술직, 사무직종사자 가계의 부채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숙재·김순미·양정선(1996)의 연구에서는 저학력자와 비정규직, 미취업자는 부채보유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총부채액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총부채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성영애·최현자(2000)는 유형별 부채의 보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은행부채 보유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과 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본 부채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문숙재·김순미·양정선(1996)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금융자산과 근로소득이 부채보유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융자산은 정의 관계인 반면 근로소득은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성영애최현자(2000)의 연구에서 금융자산과 부채보유 확률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과 다소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실물자산은 금융기관 부채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반면, 사채액에 대해서는 비근로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부채액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이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실물자산은 정적 관계를, 금융자산은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총부채액은 증가하였다.

한편 양세정(2000)은 맞벌이가구의 부채보유행태에 관해서 분석하였는데 우리 나라 도시가계의 69.1%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부채보유비율은 73.5%로 비맞벌이 가구의 67.2%보다 높았다고 하였다. 맞벌이 가구는 은행권과 할부, 외상잔액 등을 통한 부채조달이 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직업이 관리전문직이거나 중·고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은행권 등 제도권을 통한 부채이용이 활발하였다. 배우자가 관리전문직이거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보유액이 높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채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부채액, 부채보유 등의 관련요인만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고 금융자산수준에 따른 부채보유현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의 금융자산수준에 따른 부채보유와 부채액, 부채유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금융자산수준에 따라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비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금융자산수준에 따라 가계의 부채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차입 방법별 부채 총액과 부채 비율은 금융자산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부채의 주된 용도는 금융자산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금융자산수준에 따라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액 및 이자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금융자산수준에 따른 가계의 부채행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가계의 금융자산수준을 상중하 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가구소비실태조사'의 3차 자료(2001년 조사)를 사용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가구의 소득과 소비, 내구재 및 자산보유실태 등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수준 및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1991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다.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가구원 및 주거 등 가구에 관한 일반사항은 27개 항목, 지출관련 5개 항목, 저축 및 부채관련 2개 항목, 가구내구재 1개 항목, 부동산 관련 3개 항목으로 총 4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3차 자료는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부채현황이며, 2001년 5월 7일~2001년 5월 18일에 조사되었고, 표본가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실사표본조사구중에서 섬지역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2,029개 보통조사구를 추출단위조사구로 설정하고, 지역별 표본조사구 추출시 크기의 측도에 비례하는 확률을 가진 계통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가구 중에서 연구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표본가구 즉, 2인 미만의 미혼가구, 부실기재된 가계를 제외하여 총 16,117가구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실증분석에 이용된 변수들 중에서 개념정의가 필요한 변수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1) 부채

본 연구에서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갚지 못한 부채의 잔액'을 가계가 보유한 부채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것은 사업목적의 부채를 제외한 순수 가계용 부채만을 의미한다. 자산수준에 따른 부채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차입방법에 따라서 부채금액과 부채비율을 살펴보았다. 차입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 직장 대출, 사채, 현금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계 탄 후 불입해야할 총액, 외상 및 할부액(신용카드미결제금),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2) 금융자산수준

본 연구에서는 가계를 금융자산수준을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가계의 금융자산보유액을 상위 20%와 하위 20%를 각각 고자산층과 저자산층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가계를 중자산층으로 하였다.

3)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액 및 이자율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2000년 일년 동안 차입금액에 대해 지불한 이자액을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것을 차입금액에 대해 가계가 지불한 이자액으로 보았다. 또한 총 부채금액 대비 지불한 이자액의 비율을 구하여 이것을 소비자의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율로 정의하였다.

4.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금융자산수준에 따라 가계의 부

채보유 비중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금융자산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차입 대안별 부채총액과 비중, 이자액과 이자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Anova검정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채의 주된 용도가 소비자의 금융자산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가구원수는 4명인 사람들이 조사대상자 중 40.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가구원수는 3.6명이었다.

조사대상자는 가구주 소비자를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자가 88%로 남자가 월등히 많았으나, 저자산층에서 가구주가 여성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22%), 고자산층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2%).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약 75%를 차지하여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으나, 자산수준별로 보았을 때 고자산층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N=18,589)	금융자산수준		
			저자산 N=4,648	중간 N=9,290	고자산 N=4,651
가구원 수	2명	22.3	31.3	19.9	18.3
	3명	26.4	26.1	27.1	25.3
	4명	36.7	30.9	37.9	40.1
	5명 이상	14.5	11.7	15.1	16.3
	(평균)	(3.5)	(3.3)	(3.5)	(3.6)
가구주 성별	남	84.1	78.3	84.7	88.5
	여	15.9	21.7	15.3	11.5
가구주 교육 수준	중학교이하	28.9	39.4	28.4	19.3
	고등학교	42.3	40.7	43.9	40.6
	대학교이상	28.9	19.9	27.7	40.1
연간 소득	1000만원 미만	9.1	21.4	6.0	2.9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6.0	41.6	25.9	10.5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7.4	23.8	32.4	21.1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7.7	8.1	20.2	22.4
	4000만원 이상 (평균)<단위:만원>	19.9 (3000.5)	5.1 (1877.2)	15.6 (2803.3)	43.1 (4516.9)
가구주 직업	근로자	56.9	53.5	59.2	55.6
	자영자	28.2	25.0	30.0	28.0
	무직	14.9	21.5	10.9	16.4
거주 지역	서울	13.7	13.1	14.9	16.3
	광역시	45.0	43.9	40.8	40.8
	기타	41.4	43.0	44.3	42.9
자가보유 여부	보유	59.0	46.2	57.4	74.7
	비보유	41.1	53.8	42.6	25.3

가구주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중졸 이하 39%, 대졸 이상 20%), 고자산층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았다(중졸 이하 19%, 대졸 이상 40%).

연간소득은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약 29%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 약 26%, 4000만원 이상이 21%로 나타났으며,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 19%였으며, 평균소득은 3000.5만원이었다. 고자산층의 평균 연간소득은 저자산층의 2.4배, 중자산층의 1.6배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농·임·어업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약 4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매종사자가 22%, 임원직·전문직 종사자가 21.4%, 사무관련 종사자가 10.2%의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서울이 15.7%, 광역시가 41.3%, 기타 지역이 43.0%이며, 자가보유는 55.7%로 조사되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자산층의 자가보유율이 가장 낮은 46%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금융자산수준에 따른 부채 보유 가계의 비율

금융자산수준에 따른 부채보유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채보유비율은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 = 179.47, p < .00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저자산층에 비해 고자산층의 부채 보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계층에 비해 저자산층의 부채비중이 높다고 보고한 박주영·최현자(1999)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인데,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금융자산만을 고려한 반면, 박주영·최현자(1999)의 연구에서는 실물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 가구의 49%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저자산층과 중자산층의 경우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47%와 46%로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가 더 많았다. 그러나 고자산층은 약 58%로 타 자산층에 비해 부채보유 가구가 더 많았다.

2. 자산수준에 따른 가계 부채행동

1) 자산수준에 따른 차입방법별 부채 총액과 부채 비율

차입방법별 부채 총액과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계단 후 불입해야 할 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입방법별 부채총액은 자산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채총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채 총액의 평균은 약 908만원이었고, 저자산층 917만원, 중간계층 927만원, 고자산층 865만원

<표 2>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비율

(단위 = %)

특성	구분	전체 N=18,589	금융자산수준			X ²
			저 N=4,648	중 N=9,290	고 N=4,651	
부채보유	유	49.3	47.0	46.2	57.8	179.4684***
	무	50.7	53.0	53.8	42.2	

<표 3> 차입방법별 부채 총액 및 부채 비율

(단위 = 만원)

차입방법	전체 N=18,589	금융자산수준			F
		저 N=4,648	중 N=9,290	고 N=4,651	
금융기관 대출	638.0(70.2)*	623.7(68.0)	658.0(71.0)	612.4(70.8)	1.23*
직장 대출	40.5(4.5)	19.9(2.2)	44.1(4.8)	54.1(6.3)	14.20***
사채	73.5(8.1)	115.1(12.6)	63.1(6.8)	52.7(6.1)	24.59***
현금서비스	20.9(2.3)	30.6(3.3)	21.4(2.3)	10.2(1.2)	33.29***
마이너스 통장	79.6(8.8)	71.2(7.8)	82.3(8.9)	82.6(9.6)	1.40*
계단 후 불입해야할 총액	8.0(0.9)	6.8(0.7)	8.3(0.9)	8.8(1.0)	0.68
외상 및 할부액 (신용카드미결제금)	25.7(2.8)	25.3(2.8)	27.6(3.0)	22.2(2.6)	2.38**
기타	21.9(2.4)	24.5(2.6)	22.1(2.3)	18.7(2.4)	0.75**
부채 총액	908.2(100)	917.0(100)	926.9(100)	864.8(100)	1.61*
1인당 부채총액	263.2	274.1	269.4	240.0	4.79**

* 괄호안은 부채비중임

이었다. 또한 가구 1인당 부채액을 알아본 결과 1인당 부채총액의 평균은 약 263만원이었고, 자산수준로는 저자산층이 274만원, 중간계층이 269만원, 고자산층이 2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자산층일수록 총부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박주영·최현자(1999)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런 상반된 결과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금융자산만을 고려한 반면, 박주영·최현자(1999)의 연구에서는 실물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두 연구간 사용한 자료에서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부채 자료로 이 시점은 1998년의 IMF체제를 겪은 후 그 전의 수익성 위주의 투자에서 안전성 위주로 투자 우선순위가 변화한데다가, IMF시 엄청난 대출금리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바 있는 가계에서 다소 불안한 2000년 경제환경 속에서 빌려서까지 적극적 투자를 하기보다는 부채최소화 전략으로 이자지출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금융기관 대출액이 가장 많아 평균 638만원이었고 마이너스 통장이 약 80만원, 사채가 약 74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모든 집단에서 금융기관 대출 총액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고자산층의 부채 총액은 612만원으로 중자산층은 658만원, 저자산층 624만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시중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거나 대출과정이 보다 간단한 직장대출이나 대출금 이용에 있어 편의성이 높은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고자산, 중자산, 저자산의 순으로 높았으며, 반대로 상대적으로 고율의 이자부담이 있는 사채나 이자율 및

이용기간에 제한이 가해지는 단기대출인 현금 서비스의 경우 저자산층의 부채총액이 가장 높았고, 고자산층의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산층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 다음으로 사채가 115만원, 마이너스 통장이 약 71만원, 현금서비스대출이 약 31만원의 순으로 차입하고 있었다. 중자산층의 경우 가장 많은 금융기관 대출에 이어, 마이너스통장 약 82만원, 사채 63만원, 직장대출 약 44만원의 순이었으며, 고자산층은 금융기관 대출에 이어 마이너스통장 약 83만원, 직장대출 약 54%, 사채 약 5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입방법별 부채비중에 있어 모든 자산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금융자산수준에 따른 부채의 주된 용도

자산수준별로 부채의 용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전체 순위를 살펴보면 부동산구입(약 46%), 기타(약 17%), 전/월세 보증금(약 11%), 빚 갚기 위해(약 8%), 교육비(7%), 자동차(약 5%), 결혼자금(약 2%) 등의 순으로 부

동산구입이 월등히 높았으나 증권투자는 1.5%로 미미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자산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의 부채용도의 1순위는 부동산 구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현상이다(삼성경제연구소, 1999). 즉,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로 부동산구입 자금으로 이용되어져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저자산층과 중자산층 순위는 부동산구입, 기타, 전/월세 보증금, 빚 갚기 위해, 교육비까지 같았다. 고자산층의 경우 타집단에서 5순위에 있는 교육비가 부동산구입자금에 이어 2순위로 나타났으며, 자가보유율이 높은 고자산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타집단에서 3순위를 차지한 전세/월세 보증금의 순위는 6순위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비의 경우에는 저자산층의 경우 4.3%로 중자산층의 2.0%나 고자산층의 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자산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비를 충당할만한 자산이 부족하여 의료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증권투자의

<표 4> 부채의 용도

(단위 - %)

부채 용도 순위	전체 N=18,589	금융자산수준			X ²
		저 N=4,648	중 N=9,290	고 N=4,651	
1	부동산구입 (46.2)	부동산구입 (35.5)	부동산구입 (48.7)	부동산구입 (53.3)	453.3383***
2	기타 (17.3)	기타 (18.0)	기타 (16.1)	기타 (19.8)	
3	전/월세 보증금(10.7)	전/월세 보증금(16.9)	전/월세 보증금(10.3)	교육비 (6.3)	
4	빚 갚기 위해 (8.4)	빚 갚기 위해 (11.0)	빚 갚기 위해 (8.3)	빚 갚기 위해 (5.4)	
5	교육비 (7.0)	교육비 (7.9)	교육비 (6.8)	자동차 (5.2)	
6	자동차 (4.6)	의료비 (4.3)	자동차 (4.9)	전/월세 보증금 (4.0)	
7	의료비(2.4)	자동차 (3.6)	의료비 (2.0)	증권투자 (3.6)	
8	결혼자금 (1.7)	결혼자금 (2.4)	결혼자금 (1.6)	결혼자금 (1.3)	
9	증권투자 (1.5)	증권투자 (0.4)	증권투자 (1.4)	의료비 (1.1)	

경우 고자산층이 3.6%로 중자산층의 1.4%나 저자산층의 0.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고자산층이 근로소득 외의 자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고자 하는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성 부채를 보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자산층이나 저자산층은 투자성 부채보다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산이 적은 가계는 다른 계층에 비해 의료비나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자산이 많은 가계는 다른 계층에 비해 부동산 구입과 주식투자를 위해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이할만한 것은 모든 층의 부채용도에 있어서 교육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비중이 의료비 마련과 자동차 구입보다 높은 5순위로 나타나, 우리 나라의 교육에 대한 높은 열의가 전체 계층의 가계에 보편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자산수준에 따른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액 및 이자율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액과 이자율은 자산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액의 경우 평균 약 84만원이었고, 저자산층은 약 87만원, 중자산층은 약 86만원, 그리고 고자산층은 약 79만원이었다. 이것은 앞의 <표 3>에

서 본 바와 같이 자산수준 높을수록 부채 총액의 규모가 작은 것과 상응하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즉 대출총액의 규모가 클수록 이에 지불하는 이자액은 비례하여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자산수준에 따라 대출총액 대비 지급 이자액의 비율(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살펴본 결과, 자산층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저자산층이 부담하는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고자산층(9.7%)에 비해서 다소 높았다(10.6%). 저자산층의 경우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사채, 현금서비스, 외상 및 할부액의 대출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이나 직장대출의 비중이 고자산층 보다 낮았다. 그러나 저자산층이 부담하는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고자산층(9.7%)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으나(10.6%) 중자산층의 이자율(11.2%)보다는 더 낮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계 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이 금융자산계층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자를 자산수준별로 나누어 그들의 가계부채 실태를 파악하고자 부채보유 비율, 차입 방법별 부채 총액과 비율, 부채의 용도,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액과 이자율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 가구 중 49.3%의 가계

<표 5>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액 및 이자율

(단위 = 만원, %)

	전체 N=18,589	금융자산수준			F
		저 N=4,648	중 N=9,290	고 N=4,651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액	84.4	87.3	85.5	79.4	1.95*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율	10.8	10.6	11.2	9.7	2.12*

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저자산층에 비해 고자산층의 부채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총액은 저자산층 917만원, 중자산층 927만원, 그리고 고자산층 865만원으로 자산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채 총액은 감소하였다. 또한 차입 방법별 부채 총액을 살펴본 결과, 모든 차입방법에 있어 모두 자산수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든 자산층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가장 높았고 마이너스 통장, 사채, 직장대출, 외상 및 할부액, 기타, 현금서비스의 순이었다. 고자산층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 마이너스 통장, 직장 대출, 사채의 순이었고 중자산층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 마이너스 통장, 사채, 직장대출의 순이었다. 저자산층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 사채, 마이너스 통장, 현금서비스의 순이었다. 고자산층의 경우 직장대출의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사채와 현금서비스의 총액은 중자산층과 저자산층이 고자산층보다 높은 비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산수준별로 부채의 용도를 살펴본 결과, 부동산구입이 월등히 높았고, 기타, 전/월세보증금, 빚 갚기 위해, 교육비, 자동차, 의료비, 결혼자금, 증권투자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저자산층이 중자산층, 고자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증권투자의 경우 고자산층이 중자산층, 저자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액은 자산수준이 낮을수록 대출규모가 많아, 대출총액의 규모에 비례하여 커졌다. 한편 이자율의 경우 고자산층이 가장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중자산층이 가장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산수준에 따른 부채보유 여부와 부채 용도를 살펴보았을 때, 자산수준이 높은 집단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인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른바 빚이라고 하는 개념이 절대적인 필요와 빈곤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여겨왔던 것과는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또 하나의 투자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둘째, 자산수준별 차입 방법별 부채보유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자산층에서 금융기관 대출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저자산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았고 반면 사채보유비율은 저자산층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아직도 자산수준이 낮은 계층이 사금융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금융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성과 신속성, 접근용이성 등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건전한 부채기관의 이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계층을 위한 혜택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부채의 용도에 있어 자산수준에 상관없이 부동산구입이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볼 때, 우리 사회는 아직 주택 관련 자금이 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의 부채 목적에 있어서 그만큼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다.

넷째, 부채의 용도에서 의료비와 교육비가 순위 안에 드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실한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입안과 시행을 통해 자산수준이 낮은 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산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가계재무관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채총액과 부채비중, 부채 용도 면에서 자산수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계층에 상관없는 전반적인 교육과 관리는 무의미하다. 각 계층에 따라 부채의 목적과 용도가 다르므로 이에 따른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 차별화된 재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산수준이 낮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 등에 관련한 현실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이들 가계가 부실화되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자산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자금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문숙재·김순미·양정선(1996). 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14(2), 157-169.
- 2) 박주영·최현자(1999). 자산계층별 가계 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93-206.
- 3) 성영애·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219.
- 4) 성영애(2000). 가구주 직업이 가계의 부채 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9(1), 21-32.
- 5) 성영애(1996). 도시근로자가계의 부채부담 추이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6), 183-194.
- 6) 성영애·최현자(2000). 유형별 부채의 보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2), 65-77
- 7) 양세정(2000). 맞벌이가구의 부채보유행태에 관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13, 61-80.
- 8) 양세정·강미나(1993). 가계금융이용실태에 관한 종합적 분석. 국민가계경제연구소.
- 9) 이은미(2002). 가계의 부채수준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행태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 10) 주인숙(1996).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10) 채은석·성영애(2000).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 관련요인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2.
- 11)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 12) Hira, T. K.(1987). Money management practices influencing household asset ownership,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1, 183-194.
- 13) Pearce, D. K.(1985). Rising household debt in perspective, Economic Review Of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70, 3-17.
- 14) Ramaswami, S. N., Srivastava, R.K. & McInosh, T. H.(1992). An exploratory study of portfolio objectives and asset holding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19, 285-306.
- 15) Weagley, R. O. & Gannon, C. F.(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2, 131-154.
- 16) Xiao, J.J.(1996).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life cycle stages on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7, 21-30.